



관내 동향

□ 보잉사, 사천 KAEMS와 항공MRO 협력 확대 기대

- 2월 9일, 에릭 존(Eric John) 보잉코리아 사장 겸 보잉인터내셔널 부사장이 한국항공서비스(KAEMS)를 방문하여 보잉과 항공기 제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, 항공MRO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(KAEMS)와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
- 에릭 존 보잉코리아사장은 보잉사의 한국 투자 약50억 달러 가운데 95%가 경남에 투자되었고, 한국의 50여개 파트너 기업 중 KAI, KAEMS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, 항공MRO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길 희망
- 항공MRO산업은 세계 항공산업 시장에서 약 20%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로 정부 제3차 항공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2020년 기준 1,306억 달러 2030년 1,96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
- 이 자리에는 홍민희 사천시 권한대행, 하영제 국회의원,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, 김형준 KAI 부사장, 김준명 KAEMS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뒤, KAEMS 민항기 정비현장을 방문

□ 진에어, '사천~김포' 노선 신규 취항

- 대한항공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(LCC) 진에어가 지난 1월 28일부터 '사천-김포' 노선 운항을 시작
- '사천-김포' 노선에는 189석 규모의 B737-800 항공기가 투입되며, 매일 2회 왕복 운행
- 운항 시간은 사천에서 10시 40분, 20시 15분, 김포에서 9시 5분, 18시 40분에 각각 출발하며 비행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

- 사천공항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 메이저 항공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1년 6개월 정도 취항 중단 되었으나, 경남도와 사천시 등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끈질길 노력으로 하이에어에 이어 진에어 유치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지역민 항공교통 편의를 증진

□ **경남도교육청-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업무협약**

- 경남도교육청(교육감 박종훈)은 2월 21일 사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(주)에서 항공우주산업의 대표 단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
- 협약식에는 박종훈 교육감과 정경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
-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협의
- 특히, 경남지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항공우주분야 연계 학과 개편 추진 연구지원, 상호간의 인적·물적 자원의 교류 증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



도내 동향

□ **항공산업 중심지 경남, 지난해 수주계약 역대 최대**

- 경남도가 지난해 항공산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수주계약 실적을 달성
- 도내 중소 항공기업 해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의 혁신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전략이 성과를 견인했다는 분석
- 지난해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의 해외 고객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경남 항공 중소기업은 7억 5692만 달러의 수주계약 실적을 달성하였고, 이는 경남도가 항공산업지원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

□ **경남시장군수협의회 ‘우주항공청 설립 및 서부경남 유치 건의’**

- 경남시장군수협의회(협의회장 허성곤 김해시장)는 지난 2월 10일 ‘우주항공청’ 설립 필요성과 서부경남 유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, 각 정당 등에 전달
- 경남 18개 시장·군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서부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60%,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업체 80%가 경남에 집중되어 있으며, 전남 고흥부터 경남 창원까지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단지를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어 우주항공청 설립의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
- 협의회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서부경남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 건의문을 내기로 합의

□ **하영제 국회의원 ‘항공우주청 서부경남에’**

-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항공우주청 설립 공약과 관련하여 하영제 국회의원은 공약을 적극 환영하며, 서부경남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
- 지난 1월 14일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남도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 대회에 참석해 ‘항공우주청 경남 설립 및 서부경남에 한국의 NASA 설립(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)’ 공약을 발표
-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우주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의 필요성과 국내 항공부품 제조업의 70%가 집중되어 있는 사천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
- 한편, 하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우리나라 항공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각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



국내 동향

□ 산업부장관 “우주·항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”

- ‘항공우주인 포럼’이 지난 1월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산업부장관,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,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 산·학·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
-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“우주·항공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것”이라며 “도심항공교통(UAM), 드론 등 신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주산업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겠다”고 밝힘
- 산업부는 향후 핵심부품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신항공산업 생태계 형성 등에 지원하여 민간경쟁력을 높일 예정

□ 21년 항공여객 3,636만명으로 전년 대비 7.7% 감소

- 국토부에 따르면 '21년 항공여객이 3,6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7.7% 감소, 코로나19 이전인 '19년 1억 2,337만 명의 29.5%를 기록
-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77.5% 감소한 321만 명이었으나 국내선 여객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인 3,315만 명을 기록
- 공항별로는 국제선 운항이 많은 인천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여객수가 늘었으며 항공화물 역시 수출호조로 전년 대비 11.4% 증가한 362만 톤을 기록
- 국토부는 “올해는 방역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운항 재개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, 드론 및 항공정비(MRO) 활성화 등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



해외 동향

□ 보잉, 무인 에어택시 벤처기업에 5천400억원 추가 투자

-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무인 에어택시 벤처기업인 위스크에 4억5천만 달러 한화 약 5천400억원을 추가 투자

- 보잉은 '19년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가 투자한 전기항공기 제조사 키티호크와 함께 위스크를 창업하고 최대주주에 등극
- 위스크는 조종사가 필요 없는 3~4인용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 (eVTOL)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최초로 무인 에어택시 운행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
- 현재 보잉, 에어버스, 엠브라에르 등이 에어택시 산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운항 예상 시기는 2028년

□ 에어버스, 중국 청두에 퇴역 항공기 재활용센터 설립 계획

- 에어버스가 중국 청두시, 에어버스 자회사 셋에어(Satair), 항공기 해체 전문 기업 타막 에어로세이브(Tarmac Aerosave)와 퇴역 항공기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
- 이는 에어버스가 유럽 외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최초의 항공기 재활용 프로젝트로 항공기 유지·보수·보관·해체 및 재활용을 담당할 예정
- 청두 샹류 국제공항에 1조1천25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될 본 센터는 80만㎡에 125대의 항공기 보관이 가능하며 2030년까지 98대의 퇴역 항공기를 해체하고 사용 가능한 부품을 재활용할 예정
- 에어버스는 올해 안에 정식 계약을 마치고 2023년 말부터 가동할 계획

작성일	2022. 2. 14.(월)	보고일	2022. 2. 15.(화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최고봉(055-831-3471)